브라운 40득점 원맨쇼…KGC, SK 꺾고 단독 1위 ▶4면 | 현대건설, 흥국 잡고 선두 독주…최다관중 신기록 ▶6면

스포츠동아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U-23챔피언십 전승 첫 우승…아시아 제패한 김학범의 힘은?

카멜레온 용병술 '학범슨'의 드라마

〈김학범+퍼거슨〉

'날았다 학범슨!'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26일 태국에서 열린 '2020 AFC U-23 챔피언십' 사우디아라비아와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6전 전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도쿄올림픽 메달 희망을 키웠다. 신들린 로테이션으로 팀을 이끈 김학범 감독이 우승 직후 선수들의 헹가래를 받고 있다. 방콕(태국) | AP뉴시스

6경기 선발 29명 변화 '신들린 로테이션'
치열한 내부경쟁 매경기 영웅 모두 달라
결승 연장 정태욱 극적골…집중력도 압권
문재인 대통령 "전승 우승 최고의 설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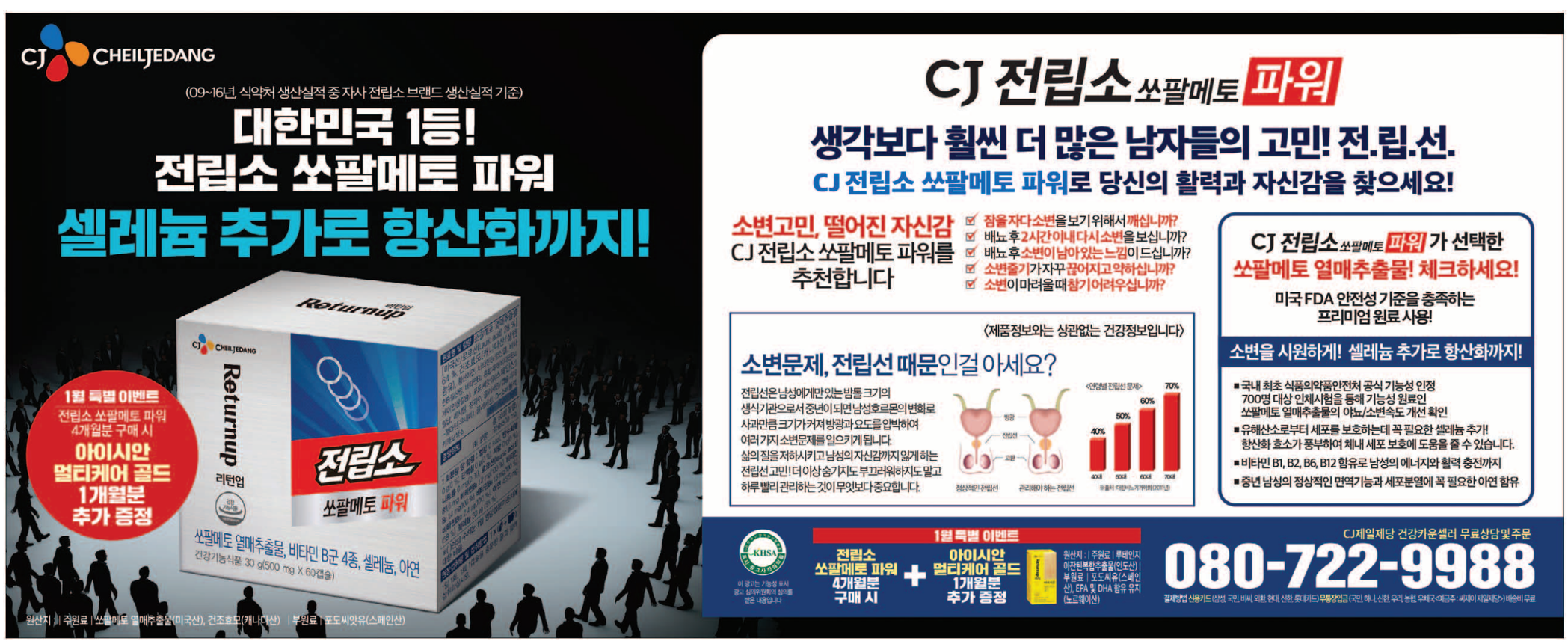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은 한국축구에 많은 걸 안겨줬다. 전승으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 최초의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티켓도 챙겼다. 또 김학범 감독은 2018 아시안게임 우승 이후 다시 한번 국제대회 정상에 오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은 26일 오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결승에서 연장 후반 8분에 터진 정태욱(대구)의 헤더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승과 8강(요르단)~4강(호주)에 이어 결승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6전 전승으로 이 대회 첫 우승에 성공했다. U-23 챔피언십은 그동안 한국이 AFC 연령별 대회 중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대회였는데, 이번에 그 고비를 넘어섰다. 한국은 앞서 준결승에서 호주를 꺾어 결승 결과와 상관없이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대회 MVP는 원두재(울산)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 압권은 김학범 감독의 용병술이었다. 특히 주전과 비주전 구분 없이 선수들을 번갈아 투입하는 로테이션은 대회 내내 화제였다. 6~7경기만으로 우승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한번 베스트 11을 확정하면 좀체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정예 멤버로 나서야 이길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김 감독은 달랐다. "매 경기가 결승전"이라고 밝힌 그는 경기마다 선발을 교체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1차전에 비해 7명의 선발을 바꿨고, 이후 6명→8명→5명 등 준결승까지 예측불허의 선발 명단을 써냈다. 결승에선 3명만 바꿨지만 줄곧 왼쪽 풀백으로 뛴 김진야(서울)를 오른쪽 윙어로 배치하는 변칙 전술을 선보였다. 로테이션은 18일 동안 6경기를 치러야하는 빡빡한 일정과 무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기도 했다.

베스트 11이 없다는 건 누구든 주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덕분에 선의의 경쟁이 벌어졌고, 긴장감과 함께 준비가 철저해졌다. 누굴 내보내도 전술의 완성도가 높았다. 로테이션이 없었다면 결승전에서 마지막까지 체력을 유지하며 뛰는 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상대 입장에서는 대비하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전술을 짜기가 쉽지 않았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